

#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 92건 중 체육시설 3건만 사전 동의 구해 ... 조례 위반 심각

### 조오섭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북구 2) 광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민간 위탁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절차 등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을 촉구했다.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현재 92건이며, 사업비는 모두 300억5000여만원이다.



정소년 활동진흥센터(6억원), 광주시 인터넷 방송(3억8000만원), 지역 아동센터 광주지원단(1억7500만원) 등 관련 사업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한 사례는 위탁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체육시설 민간 위탁 3건뿐이다.

시는 상위 법령이나 개별 조례 등에 위탁근거가 없어 의회 동의를 필요한 대상 사업은 92건 중 39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동의절차를 거친 사업은 없었다. 사실상 시가 조례를 위반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조 의원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개별 조례에 포괄적인 위탁근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위탁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동의 대상 사업은 92건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광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는 “백번 양보해 의회 동의 대상이 39

건으로 본다 해도 이들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정 의사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 2명 압축 ... 오늘 이사회 심의

재공모가 진행중인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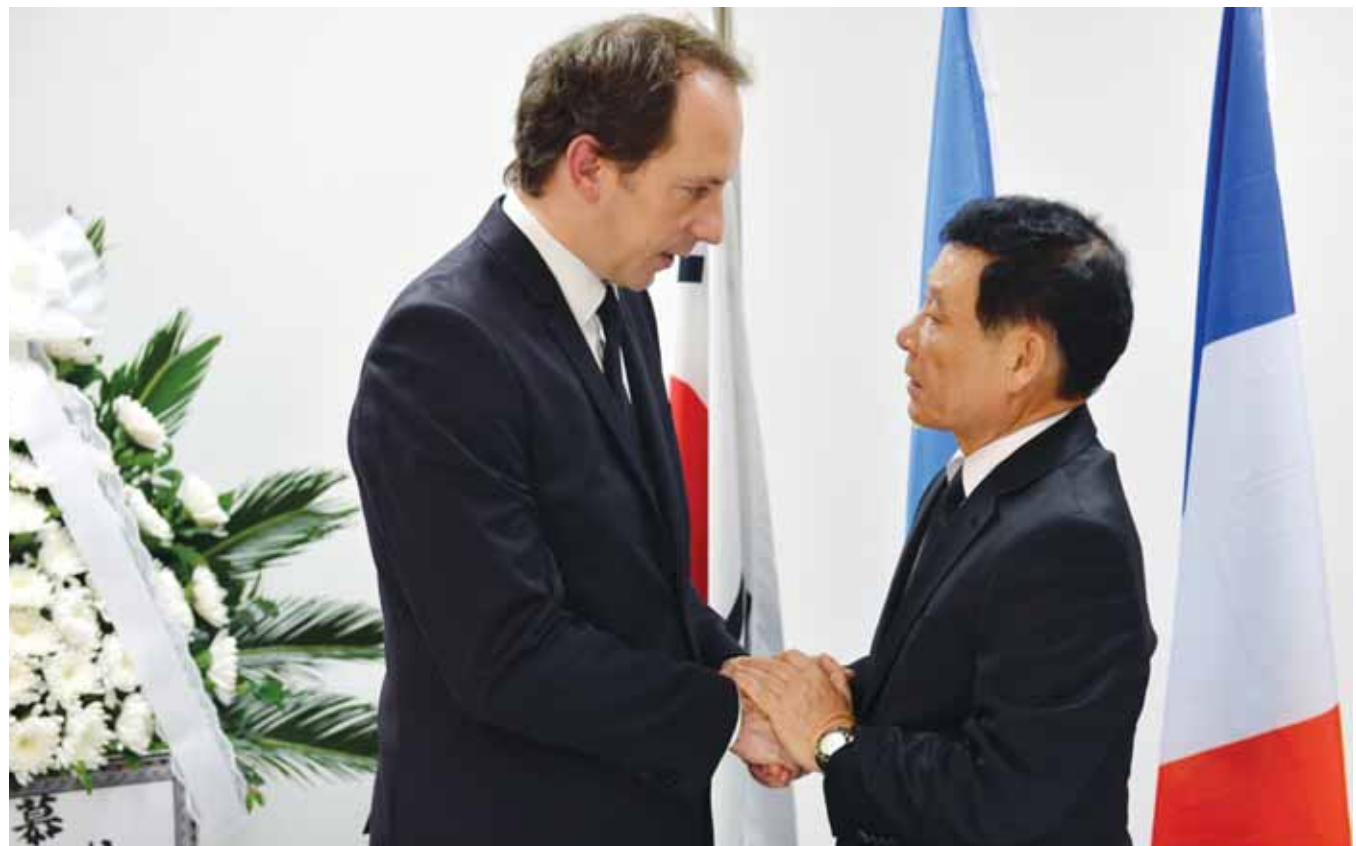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을 통과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결과 전직 복지재단 간부와 순천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통과시켰다.

복지재단 이사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적격여부 등을 심의·의결한 뒤 윤장현 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순위 구분없이 복수 추천되며 윤 시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낙점, 시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복지재단은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을 통합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내정됐던 군산대 임기욱 교수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데 따른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프랑스 테러 희생자 조문. 윤장현 광주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피비암 패는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광주시민들의 위로를 전했다. <광주시청 제공>

# 전남도 발주 도로공사 하자 많다 ... 30곳 보수

## 도 행정사무감사 ... 토사 유실·철근 부식·벽체균열 발생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중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총 30곳의 공사가 대대적인 하자보수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자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 관련 사업 가운데 하자보수 대상은 16개 지

구 30곳이었다.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4개 지구 5개소, 지방도는 2개 지구 9개소, 기타 도로사업은 10개 지구 16개소다.

동화~남평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토사가 유실되고 배수시설이 막혀 하자보수가 추진 중이며, 신금~하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교동교 신축이음장치가 부식

되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해 하자보수를 마쳤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도 대흥교 신축이음과 교대·교각 등에 균열이 발생해 보수작업이 진행중이고, 화원~산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개소에서 균열과 누수, 흠구멍 등이 발생해 하자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신월~청용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자전기 포장으로 일부가 파손됐으며, 지

도~사육 간 연륙교 가설공사도 무려 6개소의 고무연결부나 교량난간, 시공장치 등이 파손됐다.

이밖에 여천~화양 간 연륙교 가설공사, 고달교 개축공사, 거금도 연륙교 가설공사, 목포~압해 간 연륙교 가설공사,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나주역~빛가람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 등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보수작업을 마쳤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철근노출 부식이나 벽체 균열, 침하, 법면 유실 등이 포함돼 전남도 발주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 지방 정가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 김용집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김용집(비례)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면서 시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국외 체류 중 배우처 결재와 한달 이상 입원 배우처 결재 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



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이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인적 역량 부족”

### 박춘수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추진할 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수(남구 3) 광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은 내부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8개 과제와 63개 단위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컨트론타워’인 국제교류담당관실 공무원이 5명에 불과하다며 증원을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가 가능한 공무원이 이 중 2명뿐”이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원을 늘리고 대(對) 중국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중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간·교보·다는 관 주도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민간인 활용에 앞서 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 전남 제조업 고용 두달 연속 10만명 회복

### 통계청, 실업자 1만명대 감소

전남지역 제조업 고용이 17년만에 2개월 연속 10만명을 회복하고, 24개월만에 실업자가 1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최근 6개월간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0월 시·도별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취업자는 94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만 5000명)보다 7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62.7%로 지난해(62.6%)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0.9%)을 웃도는 것으로 제주, 충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지난해(2만 2000명)보다 3000명 줄었다. 실업률도 2.0%로 지난해(2.2%)보

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3.1%)을 밑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빛가람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998년 3월 10만 2000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2002년 8월 최저치인 7만 3000명까지 하락했다가 17년 만인 9월 10만 1000명으로 다시 10만 명을 회복한데 이어 10월에는 10만 9000명을 넘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만 7000명)보다 1만 6000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61.4%로 지난해(60.9%)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져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내과 / 소아과 / 피부과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